



기획시리즈



임경빈  
전 서울대 교수

# 조경수목 산책 (Ⅱ X Ⅵ)

## — 구상나무 —



▲아름다운 구상나무의 수형, 한라산 정상부근 1955.9.22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물이라 할 수 있다. 또 스스로가 아름답게 보이고자 애를 쓴다.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장치 등 인간의 욕구는 이차원, 삼차원의 경지를 넘어서서 퍼져 나간다.

길가에나 집안 뜰에 보기 좋은 나무를 심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 한다. 그래서 살아가는 보람을 찾고자 한다.

지금도 그러한 것을 책에서 읽을 수 있지만 필자가 학창에서 수학할 무렵 세계삼대미수(世界三大美樹)라는 말을 들었고 그러한 지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일본 책으로서 삼림가필휴(森林家必携)라는 것이 있다. 임업인

이라면 누구나 한 권 가지고 있는 책이다. 각종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그 중 세계제일(世界第一)의 나무라는 항목이 있다. 흥미있는 정보가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의 일부를 음미해 본다.

1. 높게 자라는 나무 : 미국의 세콰이어나무, 눈높이 즐기들레



▲덕유산의 구상나무 1985.2.23

▲구상나무의 잎, 미요두(微凹頭)

60m, 수피의 두께 30cm, 호주산의 유칼리(*Eucalyptus amygdalina*), 높이 153m

2. 수관이 확장하는 나무 : 인도의 반얀(*Ficus bengalensis*), 수관이 2.07ha의 면적을 덮고 있다.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필자가 본지에서 피나무의 향에서 설명한 바 있다.

3. 가장 단단한 목재를 가진 나무 : 서인도(西印度)와 남미에 자라는 과야크나무(*Guajacum officinale*)

4. 가장 연한 목재를 가진 나무 : 남양군도에 자라는 물나무(*Pisonia cexelsa*), 줄기둘레 58m 되는 나무도 낮으로 끊을 수 있다. 물나무라는 이름을 필자가 붙여 보았다.

5. 잎이 가장 큰 나무 : 큰잎야자나무(*Maximiliana regia*), 잎길이 15m, 잎넓이 5m, 말레지아산의 월미야(*Wormia*), 잎길이 18m

6. 가장 훌륭한 목재를 가진 나무 : 서인도산의 마호가니

(*Swietenia mahagoni*)

7. 향기 좋은 나무 : 가라(伽羅) 또는 침향(沈香, *Aquilaria agallocha*) 그리고 백단(白檀) 또는 전단(旃檀, *Santalum album*)

8. 가장 오래된 나무 : 카나리 군도(群島)에 자라는 용혈수(龍血樹, *Dracaena draco*), 줄기둘레 15m, 수령 6000년

9.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나무 : 히말라시아이더(*Cedrus deodara*), 아라우카리아(*Araucaria*), 금송(金松, 일본 원산의 침엽수)

여기에서 지적할 한 항목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에 3가지가 있다는 데 듣기에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 방면에 관여하는 세계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국제적인 모임에서 투표에 의한 것이라 한다. 이것이 투표로 결정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이라고 한다. 앞에 든 나무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조경수목이라는 것이다.

이 중 히말라시아이더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심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나무의 조경적 가



▲구상나무의 구과 포린이 반전할 한라산 1976.9.20

▲구상나무구과의 축 만남고 포린은 떨어졌다.  
한라산  
1993. 10. 19



치를 인정하고 있다. 히말라야시이더는 아랫가지가 길게 살아있어서 주변의 땅을 덮고 있어야 아름답다. 흙이 있을 더럽힐 우려가 있으나 원래는 히말라야시이더의 낙엽이 땅을 덮어 흙이 뜨는 빗물이 이 나무의 아랫가지를 더럽힐 수는 없다. 히말라야시이더의 수관선은 줄기의 끝부터 땅 표면에 이르기까지 넉넉하게 포물선을 이루어 나무의 입체감과 거대감을 도와주고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가까이에 있어서 먼 곳에 있는 듯하고 키가 낮아도 높은 것 같이 보이고 무게있게 보인다. 그리고 수관선이 동서남북으로 고르게 퍼져 난잡스럽지 않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틀림없이 이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로 채택된 것은 의의가 없다. 그런데 유럽쪽 레바논지역에 레바논시이더가 있고 식물분류학상 히말라야시이더에 매우 가까운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믿고 해마다 시이더축제를 열고 있고 국

기에도 이 나무가 들어가 있다. 이러나 저러나 히말라야시이더가 아름다운 나무로 된 것은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말이 있을 수 없으나 그만큼 우리는 이 나무에 넓은 공간을 주고 잘 자라게 해야 한다. 아름다움은 가꾸어 주어야 한다. 특히 현대화 도시화의 시대 공간을 아끼는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나무의 아름다움을 여지없이 즐기자면 우리는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음으로 아라우카리아가 있다. 이 나무는 열대성의 생태를 가져 우리나라에서는 기를 수가 없다. 큰 온실에 표본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하와이를 여행한 사람은 그곳에서 이 나무를 보았을 것이나 이 나무의 아름다움은 수형의 정제(整齊)함에 있다. 수관은 기하학적 원추형(圓錐型)을 이루고 가지가 수평으로 뻗는다. 모든 가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정돈된 모습으로 배열한다. 다듬어진 선형(線形)에 놀랄만하

다. 이 나무도 동서남북으로 시각을 달리해도 모양새에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틀림없이 아름다운 나무이다. 사람은 모두 이러한 정돈된 미를 좋아하는 것 같다.

끝으로 금송이 있다. 이것은 일본산의 나자식물 즉 침엽수종이다. 일본사람들은 이 나무를 「고오야마끼」라고 부른다. 학명은 *Sciadopitys verticillata* 인데 그들도 한문자로는 금송(金松)으로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간혹 볼 수 있으나 많은 편은 못된다. 자라는데 생태적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고 생활력에 지쳐있는 종임을 느끼게 한다. 금송은 상록교목이고 잎은 가늘고 긴 선형(線形)이며 잎이 가지의 끝에 모여서 둘러난다(輪生). 앞에 광택이 있고 수형이 단정하며 깨끗하게 보인다.

공원 등 조경수로 귀중한 것이

▲어린구상나무의 전형적인 수형 한라산  
1993. 10. 19





▲백록담 구상나무의 Kurum hak, 1993. 10. 19

다. 일본특산의 수종이다. 이 나무가 세계 3대 미수에 선발된 것에 이의를 가지지는 않으나 이 나무가 분포에 있어서나 재배영역의 범위로 보아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을 지적할 만하다. 히말라야시더는 세계적인 재배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아라우카리아만해도 온도 습도조건만 맞으면 재배가능한 범위는 넓다. 말하자면 열대성지역에서는 어지간하면 이것을 재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점으로 보아 금송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같고 일본독점의 나무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금송이 무척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에 든 3가지 나무들이 모두 침엽수라는데 흥미를 가지게 된다. 금송은 일종일과(一科)의 나무이다. 침엽수종 즉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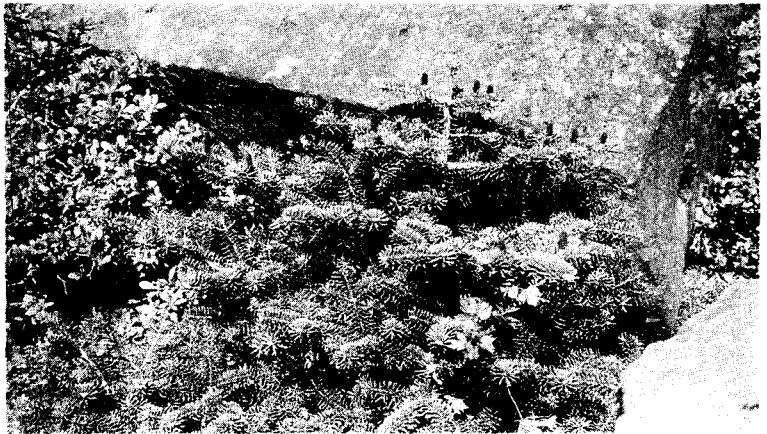
▲구상나무의 삶과 죽음, 한라산 1993. 10. 19

자식물이 모두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된 것은 흥미있는 점이다. 그들이 상록성이기 때문에 일년 내내 그 미관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잠재우는 계절이 없다는데 큰 장점이 있다. 잠시동안이라도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심상에 이그러진 인상으로 남아 아름다웠을 때에도 회상이 되어 흠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의 항상성(恒常性)이란 것은 미학(美學)의 한 원리같이 생각된다.

### 아름다운 구상나무

세계에는 3대 미수 못지않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다. 외국산의 가문비나무류, 전나무류에 많다. 필자가 경탄한 나무에 오모리카가문비나무가 있다. 천하일품의미를 구비하고 있다. 활엽수종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지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잎의 계절에 따른 변색이라

든가 기이한 수형을 가져 우리를 잡아 당기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지속성이 없다. 침엽수종은 활엽수종보다 앞서서 지구상에 출현하였다. 나무를 창조한 신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었으나 아름다움에는 단점이 수반되고 있었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하나의 슬픔이었다. 창조의 신은 아름다움을 상실할 지라도 기능적으로 앞서서 활엽수종을 설계하고 작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침엽수종은 말하자면 고전적 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선호한다. 활엽수종의 미는 변화로서 우리에게 다가선다. 마치 여자나 남자나 머리에 가발을 쓰고 아름답게 보이는 기법을 쓰는 것같이 느껴진다. 우리가 가발이란 것을 알게되면 우선 밖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인정하나 그 가발이 없을 때를 생각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반작용 같은 것이 있어서 입맛이 쓰다. 상록침엽수의 뛰어난 장점이 여



◀ 구상나무의 오스카코 (oscar群), 한라산  
 ▲ 구상나무 암꽃의 개화, 한라산 백록담 1974.5.27

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구상나무, 필자로 말하랴 할 것 같으면 세계 첫째 자리에 앉아있는 아름다움의 나무라고 생각한다. 구상나무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다. 88올림픽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선수들에게 구상나무 묘목 한 그루를 주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약간은 어리석은 아이디어의 창출이었다. 그것은 식물방역상 뿌리에 흙을 붙여서는 국가간의 이동이 어렵다는데 있고 구상나무는 나근묘(裸根苗)로서는 이식했을 때 잘 살아붙지 않는 단점이 있다.

구상나무의 뿌리는 균근(菌根)을 형성해서 살아가는데 뿌리의 흙을 털어 없애면 뿌리의 기능이 쉽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하여튼 구상나무는 아름답기 짝이 없다. 몸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한라산 정상에 서서 고결함을 보인다.

고도상으로 보아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집단이다. 지리산에도 있으나 구상나무로 보아서는 변절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아랫가지를 넓게 확장해서 땅을 덮고 있는 것은 구상나무의 안정을 상징해 주는 것이며 수관이 원추형으로 되어 줄기가 초살(梢殺)로 되는 것은 한라산의 바람을 의식한 탓이다. 한라산 분화구 안으로 들어가면 그키는 더욱 낮아져서 저목성(低木性)을 띤다. 그러나 바람으로 낮아졌다고 하나 줄기의 굴곡이 적은 것은 이 나무의 끈끈한 절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자. 사람들은 이것을 쿠름홀츠(Krummholz), 즉 기형적인 모습으로 말한다. 특히 분화구내 백록담 주변의 구상나무는 외곽지대의 그것보다 더 키가 낮고 줄기의 굴곡이 더 심하다.

쿠름홀츠의 전형적인 모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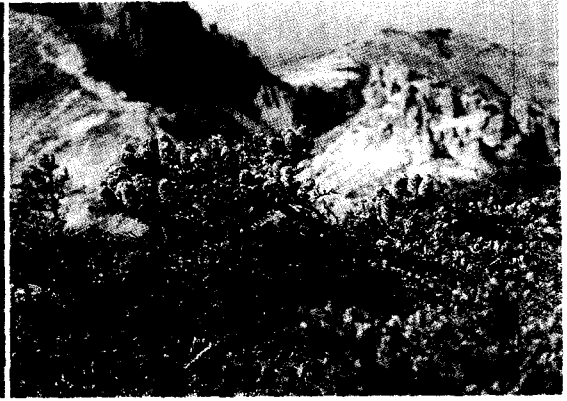
대청봉과 중청봉의 사이 말안장 지형 완사지에 분포해 있는 눈잣나무에서 볼 수 있다. 줄기가 굽고 땅을 기어가는 형태는 확실히 정상적인 것은 못된다. 오대산 비로봉 북편에 자라고 있는 전나무만 하더라도 바람으로서 곁가지는 한쪽으로만 남아 있어 기형(旗型)을 이루는데 이것도 쿠름홀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림으로 구상나무, 전나무, 분비나무의 분포를 보이는데 전나무속(Abies)에 속하는 3수종은 모두 찬 기온을 즐기는 분포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구상나무는 이 북에는 없고 그것마저 남쪽의 산악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나무와 분비나무는 그 분포가 더욱 광범하고 특히 북쪽 고원지대와 높은 산에는 으레히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구상나무는 냉온시대의 수종이다. 그것도 유전자원이 우리나라



▲백복담 분화구내 구상나무 1994. 8



▲구상나무구과의 성숙, 한라산 1993. 10. 19

남쪽에 먼저 뿌려진 것으로 믿어진다. 지질시대적으로 지난날에는 제주도와 우리나라 본토는 육지로 이어져서 해협이 없었다고 한다. 그때 구상나무 집단은 본토와 제주도 낮은 곳까지 점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그 사이에 해협이 생기고 기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구상나무들은 세력을 잃어갔을 것이다. 지구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태초의 상황에 접근한다는 뜻도 있으나 인간들의 생활활동으로 그와같이 되어간다면 그것은 지구의 품격이 내려가고 잡스럽고 속됨이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사회에도 청빈이란 말이있고 한사(寒士)라는 말이 있다. 깨끗하고 고상한 인격의 사람은 고온환경보다는 한랭환경이 더 격에 맞는다.

기온의 상승은 구상나무를 한랭한 산꼭대기로 몰아붙였다. 살만하던 옛고향을 버리고 한랭한 산정으로 쫓겨갔다. 가다가 더 울

라갈 곳을 찾지 못하던 구상나무는 절멸하고 말았다. 현재의 기온이 더 상승해 가면 한라산의 구상나무도 갈 곳이 없어 끝내는 하늘로밖에 갈 곳이 없다.

여기에 보이는 지질시대의 구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 4기로 말하는 최근 약 200만년간은 자연변동이 격심하였던 시대였다. 그중 특히 후반기 약 100만년간은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의하여 약 10만년 주기로 빙기와 간빙기(間氷期)가 반복되어 왔다. 빙기에는 세계적인 기후의 한랭화로서 세계규모로 해면이 낮아졌었다. 그러나 간빙기가 오게 되자 기후의 온난화가 오게 되고 북반구 대륙의 얼음이 녹게되어 세계적 규모로 해면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분포양식 그리고 기후 등 자연환경은 빙기와 간빙기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약 12-13만년 전의 최종 간빙기 때는 지금과 비슷한 자연환경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약 2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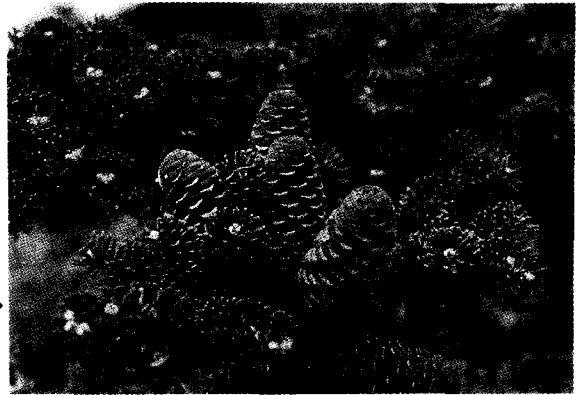
주기로 한랭기(빙기에 준하는 때)와 온난기(간빙기에 준하는 때)가 반복되었다.

약 2만년 전을 고비로 하는 1만년간(약 2.5만년 전~1.5만년 전)이 그 정도가 극점에 이른 최종빙기였다. 그러던 것이 약 1.5만년 전 이후부터 기후는 온난화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약 1만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대가 소위 홀로세(Holocene Epoch)로서 간빙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기후(古氣候)의 흐름은 구상나무의 생존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내용이다.

중국 동쪽 평원부에 대한 식생조사의 내용을 보면 최종간빙기(온난기)에는 침엽수종과 활엽수종이 섞여서 숲을 형성했으나 최종빙기(한랭기)에는 음성침엽수인 가문비나무류(Picea)와 전나무류(Abies)가 나타났다. 지금은 간빙기시대인데 이러한 침엽수종은 연평균기온 섭씨 0도 전후되는 만주의 높은 곳에 밀려나고 있다.



◀ 구상나무의 어린 나무, 제주조릿대, 한라산 어리목쪽 1985.9.21



▶ 백록담 구상나무의 구과 1983.10.19

구상나무의 삶의 영광이 긴 세월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만 오르락 내리락 했다. 현재는 그들에게 쓰러린 시기이다.

구상나무는 미의 극치에 이른 아름다운 나무이다. 고요하고 잡스러운 이웃을 멀리하고 가난한 생활자원을 걱정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이 황량하더라도 그곳에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전개한다. 그것은 요염한 계집같지 않고 지질시대를 고전을 펴고 독서에 몰두하고 있는 선비같기도 하다.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하늘나라의 선녀들과 교류를 했다는데 그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라산은 신비의 산이고 그 신비의 생물적 주인이 구상나무이다.

세계 3대 미수가 선밭될 때 그들은 구상나무가 있음을 미쳐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구상나무를 양성해서 귀중한 조경수목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 이

제 그 가치가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우리는 구상나무가 전나무과에 속하는 지질시대적 나무라는데 관심을 가진다.

여기에 참고로 지질시대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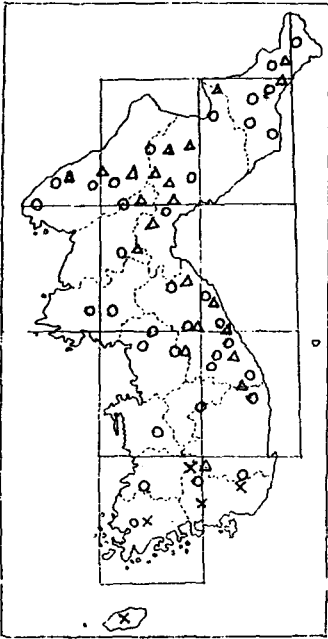
분을 표로 보였다. 우리나라 본토인 반도부에 있어서 송백류(松栎類)가 화석으로 나타난 것은 고생대 페름기(이첩기)라 하나 전나무속과는 관련이 없다. 중생대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송백류(침엽수

지질시대의 구분표

대	기	세	백만년 전에 시작
신생대	제4기	홀로세 Holocene	(2만년)
		플라이스토세 Pleistocene	2.5
	제3기	플라이오세 Pliocene	7
		마이오세 Miocene	26
		올리고세 Oligocene	38
		이오세 Eocene	54
		팰리오세 Paleocene	65
중생대		백악기 Cretaceous	136
		쥬라기 Jurassic	190
		삼첩기 Triassic	225
고생대		이첩기 Permian	280
		석탄기 Carboniferous	345
		데본기 Devonian	395
		실루리아기 Silurian	430
		오르도비스기 Ordovisian	500
		캠브리아기 Cambrian	570
		선(先)캠브리아대 Precambrian	4600

종)는 신생대로 들어오면서 절멸했다. 그러나 소나무속(Pinus)만 유일하게 중생대 백악기를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무리들이다. 소나무속의 강력한 생존력을 짐작할 수 있다. 신생대까지 살아오다가 오늘날 한반도에서 멸종된 침엽수류에는 금송속(앞에서 언급했다), 낙우송속, 메타세콰이어속, 삼나무속 등이 있다. 이들은 구상나무와는 반대로 제4기 말엽 지구의 한랭화로 절멸해 갔다.

이에 반해서 소나무속, 전나무속, 가문비나무속, 편백속, 노간주나무속 등은 제3기 마이오세 이래 오늘날까지 생을 이어온 것이다. 구상나무를 포함하는 전나무속의 수종들은 제3기 이래 우리나라



x 구상, o 전나무, Δ 분비나무

▲ 전나무 속 수종의 분포도 (현재)



▲ 구상나무 밭, 한라산 1993. 10. 19

라의 풍토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서 살아남은 것들이다. 그러나 전나무속 중 구상나무는 남아있는 집단의 크기가 작고 또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수가 적어서 살아남게 될 미래가 걱정스럽다.

한라산의 구상나무숲은 북사면에서는 해발 1290m부터 남사면은 1410m, 서사면은 1430m 그리고 동사면은 1300m부터 나타나며 정상까지 단속적(斷續的)으로 대상(帶狀) 또는 반점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조사된 일부내용을 보면 한라산의 구상나무밭은 (1)구상나무군락 (2)구상나무 제주조릿대군락 (3)구상나무 신갈나무군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한라산의 구상나무숲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후계의 숲을 만들어 나가는지 궁금하다. 소위 자연갱신이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상나무는 전나무속의 다른 수종, 즉 전나무나 분비나무처럼 어릴 때 웅덩이를 좋아하는 강한 음수이다. 따라서 어린 나무의

아랫가지는 큰 나무의 피음 아래에서도 그대로 살아남아서 광합성을 한다. 이것은 전나무속 수목이 공통된 성질이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오스카 증후군(症候群)이라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 자라고 있는 구상나무(분비나무라도 좋다)는 어릴 때의 자람이 늦어서 그곳의 상목(上木)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웅덩이의 공간에서 오래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때 어린 구상나무는 그러한 기다림의 어린 시절을 즐긴다는 것이다. 그 뒤 어찌다가 위에 있던 큰 나무가 죽게되어 큰 공극이 생기면 좋아라고 하면서 오스카의 무리들은 왕성한 자람을 시작해서 그 공간을 메운다는 것이다. 이때 어린 때를 억압이나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기다림을 즐겁게 여긴다는데 묘미가 있는 해석이다.

인간사회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 뒷자리가 비지 않아서 아래 계급에서 오래 머무





▲구상나무의 친척 분비나무 태백산, 1997. 10. 22

는 일이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초조하고 답답하게 여겨서 오스카 증후군으로 되지 못한다. 이점 구상나무는 인간보다 더 훌륭하다. 이왕 그렇게 된 처지를 전화위복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들이 인간보다 더 착하지 않은가 말이다.

### 구상나무와 분비나무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는 서로 많이 닮아있다. 잎끝이 약간 갈라져서 소위 미요두(微凹頭)라는 특성이 서로 같다. 전나무의 잎끝은 뾰족하고 날카롭다. 구상나무와 분비나무의 차이는 구과의 포린(또는 포편)의 끝이 뒤로 젖혀지는 것은 구상나무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비나무이다. 여기 사진

으로 구상나무 구과의 포편의 반전(反轉)을 보인다.

분비나무와 구상나무는 잎의 횡단면에 나타나는 수지도(樹脂道)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구상나무의 수지도는 잎의 중심부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을 외위(外位)라고 한다. 그런데 분비나무는 중심부에 가까운 중위(中位)에 있다. 이것은 마치 소나무와 해송의 잎의 횡단면에 나타나는 수지도 위치의 차이와 비슷하다. 소나무에 있어서는 수지도가 하표피(下表皮)에 붙어있다. 이것을 외위(外位)라고 한다. 그런데 해송은 수지도가 하표피와 내피(內皮)의 중간쯤에 있다. 이때 그 위치를 중위(中位)라고 한다. 수지도의 수는 5~6개에 이른다. 소나무가 순수한 종이라면 수지도는 모조리 외위이다. 그런데 한 나무에 있어서도 침엽에 따라 몇 개는 외위가 아니고 중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나무가 소나무로서의 순수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질로서 소나무와 해송을 식별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척 과학적인 기초에 입각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나무와 해송의 유전적 형질(적어도 수지도의 위치로 보는)은 격리적인 것이 못되고 어떤 경사를 가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연성(蓋然性)을 가지고 종을 식별해야 한다.

구상나무의 경우에 있어서 확



▲구상나무와 소나무의 만남, 한라산 어리북쪽 1986. 9. 21

연하게 선을 그어서 분비나무와 식별하는 것은 수지도 형질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확률의 개념을 도입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소나무와 해송의 그것처럼 말이다. 아리송하기는 해도 우리는 소나무와 해송을 식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구상나무나 분비나무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성립되어 우리는 양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 통계적 수법에 있어서 말이다.

구상나무는 여러모로 보아 우리의 자랑거리의 나무이다. 그 고결하고 항상 안주(安住)하는 수격(樹格)을 쳐다보게 된다. 이처럼 아름다운 나무가 어디에 더 있겠는가.